

건축동네 이야기

서울국제건축영화제

P. 077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모두를 위한 건축’ 22개 상영작 소개

Introducing the 22 films of the 13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Designed For All'

사진여행

P. 082

사라지는 마을
色이 있는 마을 - 신화(新和)마을
Disappearing village
Town with color(色)-Shinhwa(新和) town

연재

P. 088

용어@건축 09 _ 도구
Term@Architecture 09 _ Tool

P. 96

북한건축 워치 07
북한의 건재산업
North Korean Architecture Watch 07
Building material industry of North Korea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모두를 위한 건축’ 22개 상영작 소개

Introducing the 22 films of the 13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Designed For All'



9월 8~18일, '씨네큐브 광화문·네이버TV' 온·오프라인 동시 상영
최초 공개 및 아시아·코리아 첫 상영작 등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아시아 유일 비경쟁 건축영화제인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SIAFF, 이하 건축영화제)가 9월 8일부터 18일까지 다채로운 건축 영화를 상영 중이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특별시 주최, 대한건축사협회·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건축영화제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건축(Designed For All)'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작년 처음 개최된 온라인 건축영화제의 장점과 기존 오프라인 행사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동시 개최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긴밀한 소통과 더 많은 인원의 관람 독려 등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오프라인 행사의 진행과 흐름, 상영관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 등을 모두 충족한 행사가 치러진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기존 노들섬에서 진행이 예정됐던 개막식은 9월 8일 오후 7시 '네이버TV'에서 개최됐다. 관객과의 대화·스페셜 토크·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역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건축영화제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네이버TV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페이지에서 16개 상영작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건축영화제에는 개막작을 포함, 건축영화제 최초 공개 작품(<프랑스에서>)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최초 상영되는 아시아 프리미어 작품 6편,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코리안 프리미어 작품 7편이 상영 중이다. 상영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건축영화제 홈페이지(www.siaff.or.kr)를 참고하면 된다.

미리보는 상영작



빔스의 아이들
Kids of the Bims

2021 | 34' | Netherlands | Color/B&W | G | Asian Premiere
Dir. I AM HERE

빔스(Bims)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구역 베일머메르(Bijlmemer)에 대한 다큐멘터리. 겉으로 보기에 암스테르담은 진보적인 세계의 수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종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곳이다. 빔스는 종종 이러한 편견에 시달렸다. 그리고 지금, 빔스는 무한한 창의성으로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

알토 Aalto

2020 | 103' | Finland | Color/B&W | 12
Dir. Virpi Suutari



유명한 현대 건축사 중 한 명인 알바로 알토의 삶과 작업에 대한 매력적인 여행과도 같은 영화다. 그의 배우자였던 아이노 알토와의 친밀한 사랑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루며, 영화는 그들의 창의적 작업 과정과 세계 곳곳에 위치한 아이콘과 같은 건축물들로 관객들을 데려간다.

아치: 시대의 건축 The Arch

2020 | 104' | Italy | Color | 12 | Asian Premiere
Dir. Alessandra Stefani



이탈리아의 건축사 다다는 현대 탐험가의 모습으로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탄다. 그는 우리 시대 최고의 건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4개 대륙을 가로지르는 장대한 여행을 시작하며, 건축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드러낸다.

보디빌딩 Body-Buildings

2021 | 50' | Portugal | Color | 18 | Asian Premiere
Dir. Henrique Pina



<보디빌딩>은 춤, 건축, 영화를 한데 불러 모으며 정체성과 개념들을 융합하는 작품이다. 6명의 안무가가 포르투갈의 여섯 지역에 있는 6개의 건축물을 위한 작품을 창조했다.

인사이드 프ورا Inside Prora

2020 | 100' | Germany | Color/B&W | 12 | Korean Premiere
Dir. Nico Weber



'프ورا'는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사회주의 시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에서 가장 큰 막사로 개조되었으며, 독일 통일 이후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곳이 되었다. 이제는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에 위치한 이 보존 건물에 호텔과 별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브라질리아, 기계적 유토피아

A Machine to Live in
2020 | 88' | USA | Color | 15 | Korean Premiere
Dir. Yoni Goldstein, Meredith Zielke



브라질의 외딴 황무지 한가운데 있는 우주적 꿈과 신비한 건축물에 대한 다큐멘터리. 4명의 인물들로 구성된 새로운 형식의 다중 텍스트를 통해 영화는 초디자인의 우주 시대 도시 브라질리아에서부터 UFO 숭배, 정신주의 사원, 유토피아적 전초지의 드넓은 변영의 풍경으로 옮겨간다.

도쿄 라이드 Tokyo Ride

2020 | 90' | France, Japan | B&W | G | Korean Premiere
Dir. Ila Bêka & Louise Lemoine



<도쿄 라이드>는 니시자와 류에의 빈티지 알파 로마에올 타고 하루 동안 도쿄의 거리를 함께 다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 여정 동안 니시자와 류에는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장소, 그에게 영향을 준 건물,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를 돌아보며 고향에 대한 강한 유대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니티 템플 Unity Temple: Frank Lloyd Wright's Modern Masterpiece

2020 | 55' | USA | Color | G | Korean Premiere
Dir. Lauren Levine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걸작 유니티 템플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사에 대한 오마주다. 1900년대 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첫 공공 커미션에서부터 이 100년 된 건물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복원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을 드러낸 작품이다.

앨리스 스트리트 Alice Street

2020 | 69' | USA | Color | G | Asian Premiere
Dir. Spencer Wilkinson



급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한 도시에서 고급 콘도의 건설이 지역의 어느 벽화를 위협하고,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은 그곳의 역사, 고유의 목소리, 땅을 보호하기 위해 결집한다.

군산전기 The City of Emigrants

2020 | 61' | Korea | Color/B&W | 12
Dir. Moon Seung-Wook, Yu Yejin



군산은 개항 당시 500여 명의 주민과 77명의 일본인들이 살았던 작은 어촌이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군산을 쌀 수탈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고 전국의 노동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렇게 군산은 이방인들의 도시가 되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일제에 부역했고 해방 이후 군산에 진출한 미군들에 기대어 살아남았다. 2020년 군산은 다른 어느 지방 도시들처럼 몰락해갔다. 남은 건 과거의 흔적과 신기루처럼 도시를 스쳐 간 자본의 역사뿐.

하바나 위에서의 삶 Havana, from on High

2019 | 80' | Canada, Cuba | Color | 15 |
Korean Premiere
Dir. Pedro Ruiz



하바나의 한 퇴락해 가는 구역의 위쪽에 자리 잡은 비밀스러운 마을은 그 아래 거리의 소란에 의해 숨겨져 있다. 하바나 중심부의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택 부족 현상으로 위로 올라가야 했다. 그들은 도시 꼭대기에서 60년 이상의 혁명 정부 이후 완전히 역사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사회를 목격해왔다.

봉명주공 Land and Housing

2020 | 83' | Korea | Color | G
Dir. Kim Ki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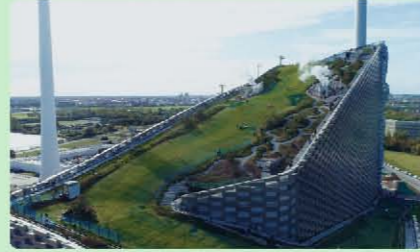


1980년대 지어진 봉명동 주공아파트는 청주의 1세대 아파트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공사 선정 등의 어려움을 겪어오다 2019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마지막까지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기를 기대하며 버텨오던 거주민들도 하나둘 이주를 시작하고, 그들이 가꾸던 꽃과 나무들은 잘려나간다.

코펜힐 건축 교향곡 Making a Mountain

2020 | 51' | Denmark | Color | G |
Korean Premiere

Dir. Kaspar Astrup Schröder, Rikke Selin



비아케 잉겔스의 유명한 프로젝트인 아마게르 언덕, 일명 코펜힐이라 불리는 꼭대기에 스키 슬로프가 위치한 폐기물 에너지 공장을 통해 폐기물 관리와 인프라를 멋진 건축물 및 도시 휴양 공간과 결합시키는 이상적인 프로젝트의 과정을 따라간다.

E14

2021 | 19' | UK | Color | 15
Dir. Peiman Zekavat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독은 영국 최대의 고밀도, 과개발 거주지에서 2주간의 첫 락다운 시기에 창문을 통해 바깥 상황을 포착하고, 빈 아파트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다.

프랑스에서 A Letter

2021 | 14' | Korea | Color | 12 |
World Premiere

Dir. Hwang Ji-eun



캠코더에 동회의 목소리와 동회의 눈으로 보았던 프랑스의 풍경들이 재생된다. 지은은 그 캠코더를 들고 그곳들을 찾아간다. 동회가 걸었던 거리들, 서점, 에펠탑 등을 가보지만 불에 무너져버린 노트르담 성당처럼 동회는 사라져버리고 없다. 지은은 동회를 만나고 싶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분자 연대기 Molecules

2020 | 68' | Italy | Color/B&W | 12 |
Korean Premiere

Dir. Andrea Segre



2020년 2~4월 락다운 기간 동안 감독은 베니스에 갇혔다. 베니스는 그의 아버지의 고향이자 부분적으로는 그의 고향이기도 했다. 그는 바이러스가 도시를 얼어붙게 만들고 텅 비게 하면서 도시의 본질과 역사를 다시 가져다주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 도시가 새로운 의미를 다가오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시각적 메모와 이야기를 수집하고, 가족과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의 상상보다 더 깊이 그를 끌어들이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탐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슈뢰딩거의 고양이들

Schrodinger's Kitties

2021 | 23' | Korea | Color | 12
Dir. Seo Yun-su



동거 중인 정선과 현승은 행복주택 공모에 거듭 탈락한다. 정선은 전세대출을 받아 경기도로 가고 싶지만 현승은 서울살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다.

WTC 러브 스토리 WTC a Love Story

2020 | 62' | Netherlands, Belgium | Color | 12 |
Asian Premiere

Dir. Wouter De Raeve, Lietje Bauwens



1970년대에 브뤼셀 북역 주변의 인구 밀집 지역은 모더니스트적 꿈과 함께 쌍둥이 빌딩을 핵심으로 하는 '리틀 맨해튼'을 만들기 위해 파괴되었다.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빌딩과 주변 지역은 대부분 버려진 상태였다. 2017년, 개인 소유주와 정치인이 힘을 합쳐 이 지역을 재활성화하고자 했다. 감독들은 정치인, 활동가, 개인 소유주, 설계자 등 이 전환 과정에 연관된 사람들을 연기하는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 토론의 장에 참여하고자 했다.

꿈꾸는 고양이 Dreaming Cat

2020 | 74' | Korea | Color | G
Dir. Kang Min Hyun, Ji Won



서울의 달동네, 경기도 성남, 대구, 부산의 재개발 지역. 곧 부서지고 버려질 이 동네엔 단지 살고 싶다는 꿈을 꾸는 고양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곳엔 그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다. 무너지는 그곳에서 만난 아이에게 꿈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공존하는 삶을 꿈꾸는 여정이 시작된다.

브랫, 집으로 BRATS: Our Journey Home

2006 | 90' | USA | Color/B&W | 15 |
Asian Premiere

Dir. Donna Musil



미군기지에서 자란 이들이 그들의 독특한 어린 시절의 내밀한 기억을 공유한다. 미군기지 안에서 자라 세계를 떠돌며 공통점이 거의 없는 미국식 생활 방식에 적응하고자 고군분투했던 기억이다.

그라이아이: 주둔하는 신

Graeae: A Stationed Idea

2020 | 33' | Korea | Color/B&W | G
Dir. Jeong Yeoreum



우리 동네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 이 장소는 보이지 않는다. 영화는 자기충족적인 예언에 기댄 미국과 미군의 공중누각을 관음하는 데서 출발하여 한 장소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은밀함을 조명한다. 새들의 소리 없는 비상이 기류를 알려주듯, 어떠한 징조는 보이는 것을 알지른다.

이태원 Itaewon

2016 | 94' | Korea | Color | 15
Dir. Kangyu Garam



용산 미8군 기지촌으로 성장한 이태원은 현재 다국적 레스토랑, 다양한 인종으로 표상되는 '핫한 이방적 공간'으로 미디어에 재현된다. 미군 대상 유흥 산업에 종사했고, 여전히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 급격한 변화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다큐멘터리 <이태원>은 미군의 달려가 이태원을 지배했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기억과 일상을 따라가며 이태원의 변화를 바라본다.